

주요 내용

1. [한국 여성폭력 실태_스토킹 피해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 피해자, '여성'이 86%!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 1) 한국 주요 정치인 호감도
 - 2) 2022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 피해자, ‘여성’이 86%!

최근 신당역 지하철 역사 내 스토킹 살인 사건이 세간에 이목을 끌고 있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피해자)을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미국의 법적 정의)’을 말한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남녀 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애정 공세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인 ‘주관적 피해 감정’, ‘가해자의 고의성’, ‘행위의 반복성’에 해당되면 이것은 애정표현이 아닌 스토킹이며 엄연한 범죄 행위가 된다.

통계청의 2020년 범죄 피해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 추행 등 포함) 중 여성 피해율은 86%에 달하며, 또 다른 자료(‘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여성폭력 가해자 성별(5가지 폭력유형 평균)’ 중 대다수(87%)는 남성으로 조사됐다.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 여성이 범죄에 취약한 것은 틀림없다.

이번 <넘버즈 161호>에서는 ‘한국 여성폭력 실태 및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에 중점을 뒤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우리 사회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정책적·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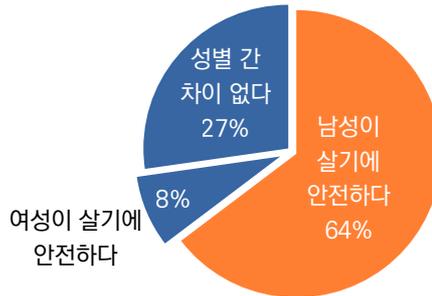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 피해자, ‘여성’이 86%

-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종) 중 여성의 피해사례 21,006건, 남성의 피해사례 2,821건으로 여성이 전체 피해사례(24,332건, 불상자 포함)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와 관련 우리사회에서 어떤 성별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이라 답한 경우가 64%였고, ‘여성’은 8%에 그쳐, 여성이 범죄로부터 취약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림] 한국 사회 강력 범죄 피해자 유형*



[그림] 우리 사회의 범죄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인식** (%)



*자료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경찰청범죄통계 중 피해자 성별 연령(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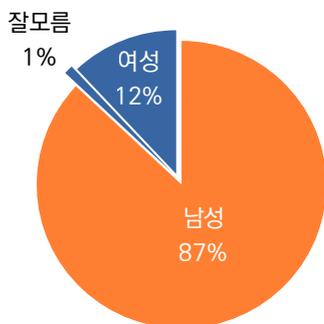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47&conn_path=12)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누구에게 더 안전한 사회인가?-범죄인식조사’(제192-1호), 2022.08.10.(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7.15.-0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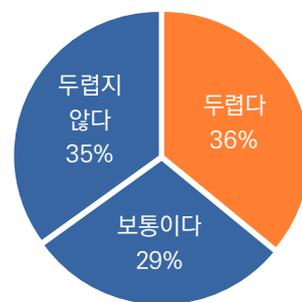
◎ 성인 여성 3명 중 1명 이상(36%), “일상에서 여성폭력 범죄 두려다”!

-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 등 5가지 유형 각각에 대해 가해자의 성별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87%(5가지 유형에 대한 평균치)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 여성만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다. 일상에서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3명 중 1명 이상(36%)이 평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여성폭력 유형별 가해자 성별 (가장 심각한 행위 기준, 5가지 폭력유형 평균, %)**



[그림] 일상에서의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여성 대상)***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가장 심각한 행위란 사건의 발생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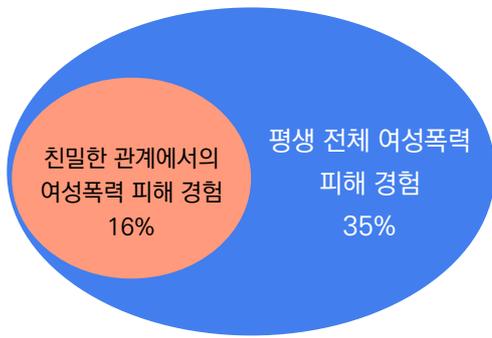
***각각 5점 척도 질문으로 ‘두렵다(매우+약간)’, ‘두렵지 않다(전혀+별로)’ 비율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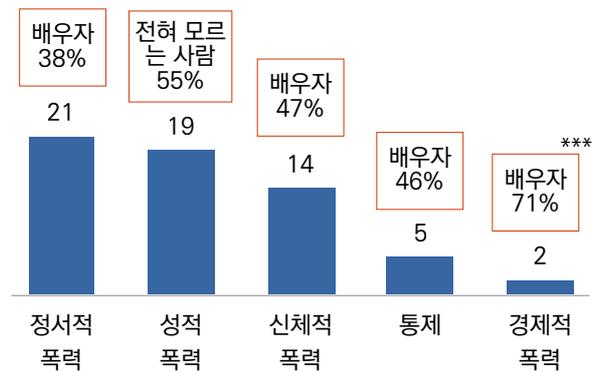
한국 여성 3명 중 1명(35%) 이상, '한 번 이상의 폭력 피해 경험'!

- ▶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중 평생 5가지 유형(정서적, 성적, 신체적, 통제, 경제적)의 폭력을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35%로 3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 ▶ 전체 여성 중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는 16%인데, 이를 폭력 피해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46%이다. 즉 폭력 피해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연인 등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셈이다.
- ▶ 유형별 피해 경험을 보면 '정서적 폭력'이 21%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 19%, '신체적 폭력' 14% 등이 뒤를 이었는데, 대체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림] 평생 여성폭력 피해 경험



[그림] 여성폭력 유형별 평생 피해 경험(중복응답,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폭력유형 설명

- 신체적 폭력 : 때리거나,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 행동
- 성적 폭력 : 강제적인 성관계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성적 강압을 포함하는 폭력
- 정서적 폭력 : 모욕, 경멸, 골육감을 주거나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 등을 포함
- 통제 :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위치를 추적하고, 교육, 의료 자원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제 행위
- 경제적 폭력 : 행위자가 자신의 친밀관계 파트너를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학대하고 통제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금융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그래프 위 박스 내용은 각 폭력 유형별 가해자 1위와 그 비율을 의미함.

◎ 여성폭력 사례

- ▶ 여성 폭력 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행해지는 폭력을 살펴보면, 욕설과 폭언, 뺨을 때리고,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동의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 등이다.
- ▶ 또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겁을 주는 행위,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응답됐다.

[표]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 사례(평생 기준, 복수응답, 각각 상위 5위, %)

1) 신체적 폭력 피해 유형

응답 내용	%
밀치거나 힘껏 때리는 행위	67
몸을 다치게 하려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50
주먹이나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36
뺨을 때리는 행위	35
머리카락을 움켜잡거나, 당기는 행위	33

2) 성적 폭력 피해 유형

응답 내용	%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주 쳐다보는 행위	54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7
나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	31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행위 (키스, 포옹, 껴안기 등)	27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26

3) 정서적 폭력 피해 유형

응답 내용	%
면박주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73
비하적인 표현이나 욕설, 폭언을 쏟아붓는 행위	64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겁주는 행위	51
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3
겁주기 위해 내가 아끼는 동물, 물건, 사람(자녀 포함) 등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12

4) 통제 피해 유형

응답 내용	%
어디에 있는지를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행위	69
친구를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66
외출하는 것을 막거나 집에 감금하는 행위	24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연락과 만남을 못하게 하는 행위	21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때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7

5) 경제적 폭력 피해 유형

응답 내용	%
위자료, 양육비, 생활비 지급 등의 책임을 회피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행위	48
강제로 빚을 지게 하거나, 자신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	30
내 몫이 있는 수입, 저축 등 금융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28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25
내 몫이 있는 물건의 구입과 처분 등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1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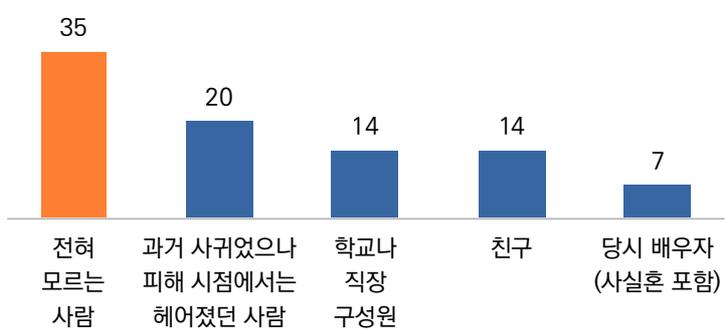
스토킹 가해자 3명 중 1명(35%)은 ‘생면부지’!

- ▶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 경험에 대해 물었다. 평생 동안 스토킹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여성의 2.5%로 20대 여성(4%)이 다른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30대 3%, 40대 3%, 50대 2%, 60세 이상 1%)
- ▶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물어보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고, ‘과거 연인’이 20%로 두 번째로 높았다.
- ▶ 최근 신당역 지하철 스토킹 사망 사건(과거 직장동료)에서 처럼 ‘직장 구성원’인 경우도 10명 중 1명 이상(14%)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스토킹 피해 경험 (%)



[그림] 스토킹 가해자 유형 (중복응답, 상위 5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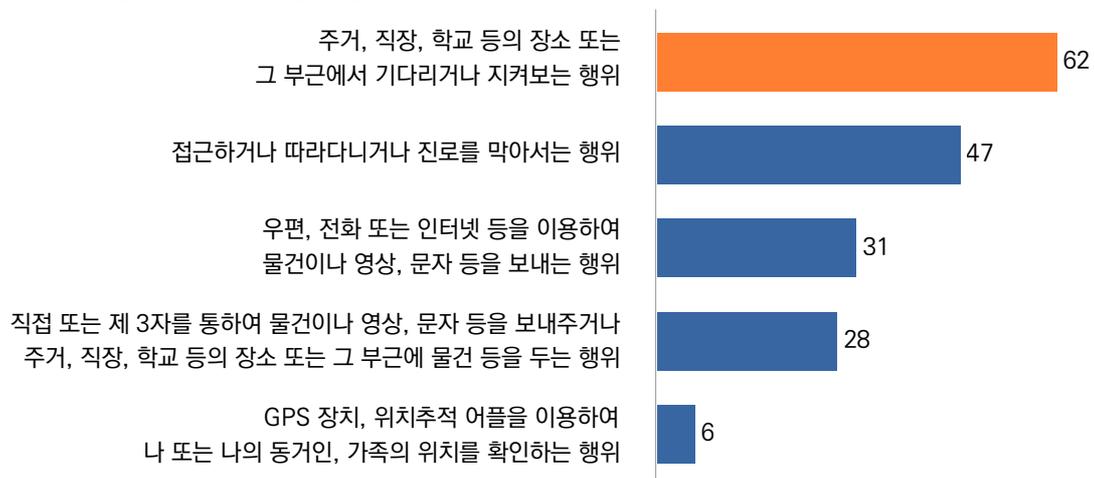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 스토킹 피해 유형 1위, ‘누군가 집이나 직장 등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다’ 62%

- ▶ 스토킹 피해(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62%로 가장 많았다.
- ▶ 이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47%,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영상, 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스토킹 피해 유형 (복수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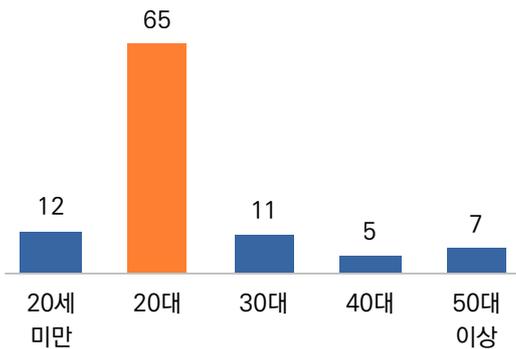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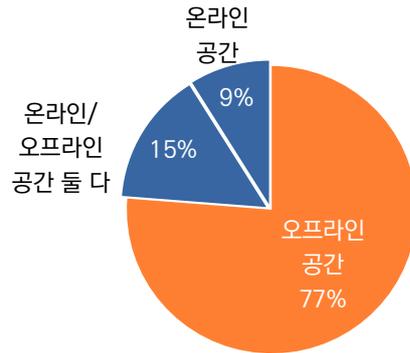
20대 여성이 스토킹의 주 타깃!

- ▶ 스토킹을 경험한 경우 중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의 경우가 언제였는지 질문했는데 ‘20대’ 때가 65%로 압도적으로 많아, 심각한 스토킹 피해가 주로 20대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 또 스토킹을 경험한 장소로는 오프라인 공간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오프라인 공간 둘 다’라는 응답도 6명 중 1명꼴(15%)로 나타났다. 대부분 스토킹 피해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비율도 적지 않음(온라인+온·오프라인 둘 다, 24%)을 알 수 있다.

[그림]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당시 나이**



[그림] 가장 심각한 스토킹 피해 당시 나이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가장 심각했던 행위 : 사건의 발생 당시/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기준임.

◎ 20대 여성 79%,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한 적 있다'

- ▶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개의 '온라인 스토킹 피해 유형' 중 1개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에 달했다. 20대 여성 10명 중 8명꼴로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이다. (앞에서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스토킹 경험률과 상이한 것은 이 조사의 경우 10개의 스토킹 사례를 제시한 후 해당사항에 체크하게 한 것으로 이런 경우 경험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 스토킹 피해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저장하기'(57%), '사생활 알아내기'(56%), '원치 않는 글, 이미지 전송하기'(54%)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그림] 온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

'온라인 스토킹 경험한 적 있다'



[그림] 온라인 스토킹 피해 유형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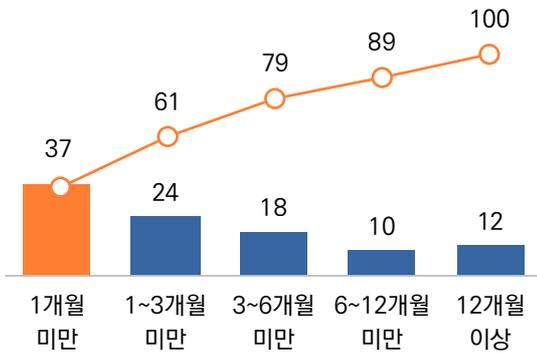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회 여성정책위원회/여성정책연구소,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2021.03(20대 여성 903명, 온라인 조사, 2021.01.15.~02.07)

05

스토킹 피해자의 40%,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당해

- 가장 심각했던 스톱킹 행위 기준으로 스톱킹 피해 지속 기간을 물은 결과, '1개월 미만'인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으나,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40%로 10명 중 4명은 '장기적'으로 스톱킹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스톱킹 피해 지속 기간 (%) ○ 누계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 스톱킹 피해자의 대응, 절반 가까이가 '가해자를 피해 다님', '경찰 신고'는 19% 그쳐!

- 스토킹 피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다'는 비율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의했다' 37%,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31% 등의 순이었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가해자를 피해 다니는 소극적인 대응이 가장 많았다.
- 경찰 신고 경우는 19%에 그쳤다.

[그림] 스톱킹 피해 대응방법 (중복응답, 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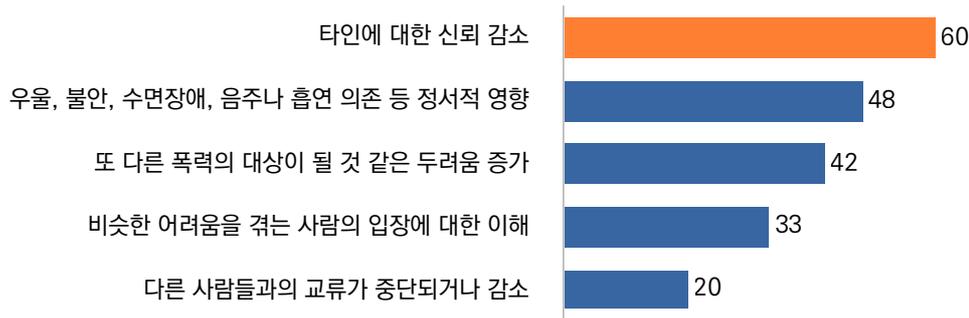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06

스토킹 피해자, '우울/불안/수면장애/음주흡연 의존' 48%!

- ▶ 스톱킹 피해로 인한 영향에 대해 몇 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물어보았다. 그 결과, 10명 중 6명(60%)은 '타인에 대한 신뢰 감소'를 꼽았고,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음주나 흡연 의존 등 정서적 영향'도 48%나 응답돼, '정신 및 신체건강'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졌다.
- ▶ 다음으로 '또 다른 폭력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증가' 42%,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해'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장 심각한 스톱킹 행위로 인한 영향 (중복응답,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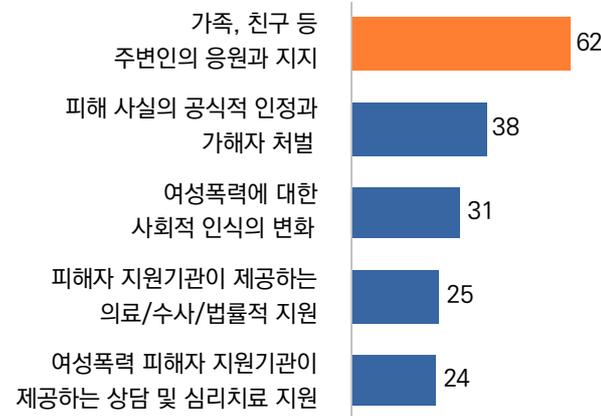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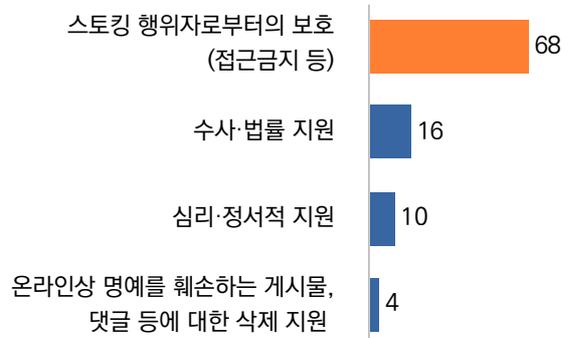
◎ 스톱킹 피해 회복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된 것... '가족, 지인의 응원과 지지' 62%!

- ▶ 이런 스톱킹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스톱킹 피해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스톱킹 피해 이후(2차 피해 포함) 일상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응원과 지지'(62%)를 1위로 꼽았고, '피해 사실의 공식적 인정과 가해자의 처벌(38%)',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또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자로부터의 보호(접근금지 등)'가 68%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번 신당역 스톱킹 살인사건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철저한 사회적 법적 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림] 스톱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 (1+2순위, %)



[그림] 스톱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 (상위 4위,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1.1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대면조사 및 유치조사, 2021.09.22.~11.30)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폭력이다. 그러므로 폭력은 힘의 우열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때 힘의 우열 관계는 기본적으로 육체적 힘의 차이이지만 꼭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며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에게는 손쉽게 폭력을 행하는 반면,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폭력을 가하지 못한다. 이런 사회적 차이가 힘의 관계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악덕 업주가 종업원에게 폭력을 거리낌없이 행하는 것도 사회적 힘의 차이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20년 강력범죄의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86%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3쪽) 더욱이 일상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해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이 36%나 된다는 것은 상당수의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3쪽) 우리 사회에서 남녀의 성비가 5:5인 것을 감안할 때 여성 피해자가 86%나 된다는 것은 여성이 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불가피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육체적 힘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힘의 차이이다. 이 사회적 힘의 차이가 남성 우월주의로 나타난다. 남성 우월주의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쉽게 생각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해주고 있다.

여성 폭력 가운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이 스토킹 범죄이다. 위키백과에서는 스토킹(stalking)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용어이다. 이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위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범죄의 종류에 해당한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하루 종일 누군가 나를 계속 주시하고 뒤를 따라다니며 어두운 밤거리에서 갑자기 나에게 불쑥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아마도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 가운데 우울, 불안, 수면장애, 음주 흡연에 의존하는 경우가 48%나 된다고 한다.(10쪽)

스토킹에 대해 여성들이 겨우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별로 없다. 기껏해야 가해자를 피해 다니거나(45%), 스토킹을 그만하라고 요구하는 정도(31%) 밖에 없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스토킹에 대해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그럴 수 있다고 양해하는 문화, 혹은 남성의 객기라고 웃어버리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스토킹을 당하는 여성에게 참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이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깊숙하게 있는 남성 우월주의 사고에 근거해서 스토킹을 바라보기 때문에 스토킹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른다.

성경은 남녀를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 돕는다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이다. 불평등 관계에서는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시혜를 내리고 받는 관계', '돕는 의무와 도움을 받을 권리의 관계'만 존재할 뿐이다. 동등한 관계는 상대방의 육체적 능력, 가문, 학력, 재력 등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나하고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남녀가 서로를 동등한 관계로 대할 때 남성 우월주의는 사라지고 여성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권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는 우리 안에 가치관, 세계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를 깨뜨리자고 주장만 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다. 남성 스스로가 내면의 가치관을 검열하고 자신의 언행이 나도 모르게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항상 스스로 분별하고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고통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어색함과 거부감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성이 동등한 관계로 서로 돕는 존재가 될 때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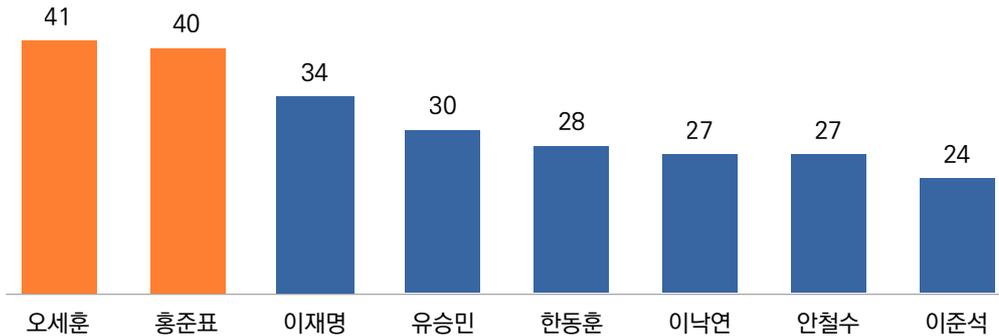
- 1.[한국 주요 정치인 호감도]
- 2.[2022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



주요 정치인 8명 호감도, 오세훈과 홍준표 1위!

- ▶ 한국갤럽이 최근(9월 13~15일)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에게 정계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41%)과 홍준표 대구시장(40%)이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으며, 8명 중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그림] 주요 정치인 개별 호감도** ('호감 간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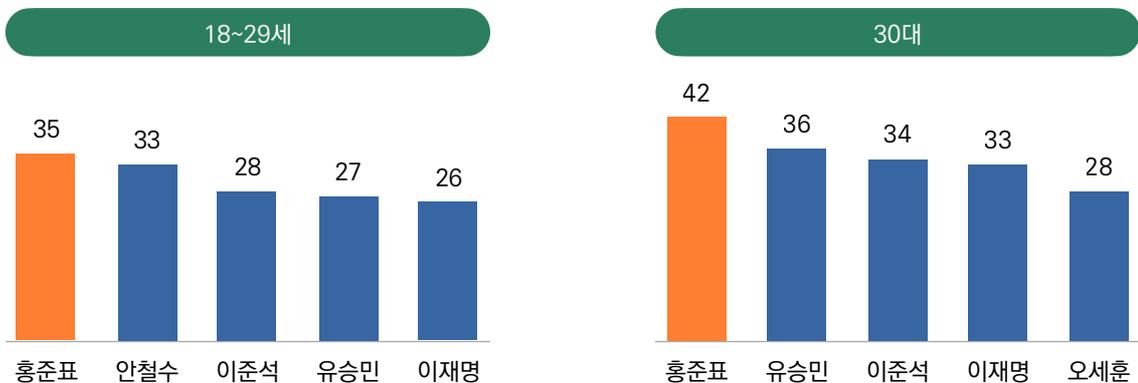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갤럽,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 조사, 데일리 오피니언 제511호 (2022.09.16.,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전화조사, 2022.09.13.-15)
**2점 척도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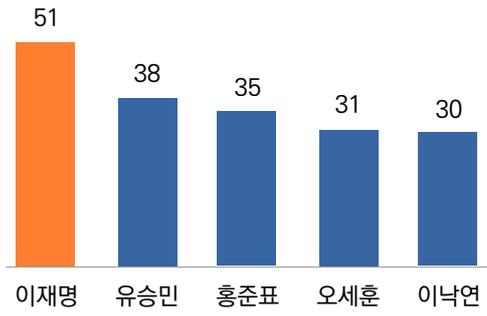
◎ 2030세대는 홍준표, 40대는 이재명, 50대 이상은 오세훈으로 각각 호감도 갈려!

- ▶ 연령대별 호감도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60대 이상의 호감도가 61%에 달해 2위(홍준표, 45%)와의 격차가 16%p나 벌어진 점이 눈에 띈다.
- ▶ 40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절반(51%)이 '호감이 간다'고 응답해 타 인물 대비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 ▶ 2030세대는 홍준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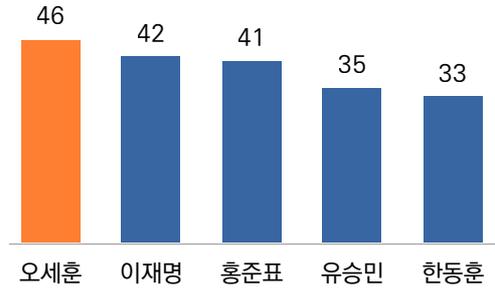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정계 주요인물 호감도** (연령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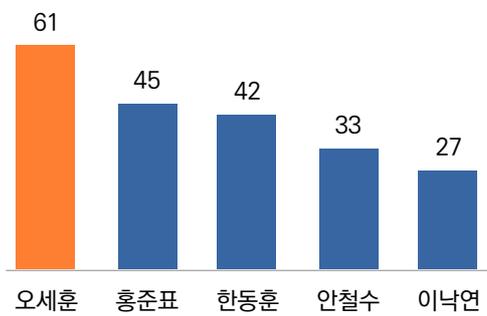
40대



50대



6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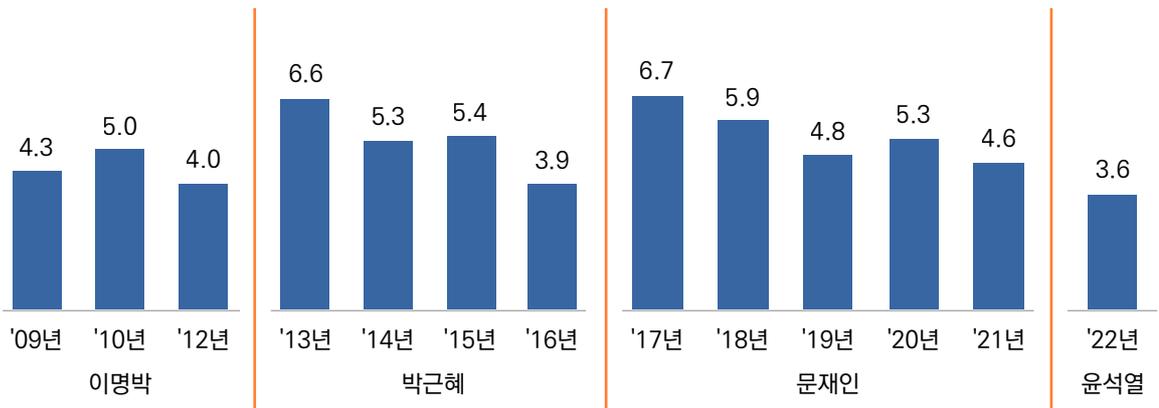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정계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 조사, 데일리 오피니언 제511호 (2022.09.16.,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전화조사, 2022.09.13.-15)
 **2점 척도 질문임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 역대 대통령 중 최저점, 10점 만점에 3.6점

- ▶ 시사인에서 최근 ‘2022 한국사회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 2022년 8월 기준, 취임 후 100일 정도 된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신뢰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6점으로, ‘0~4점’ 불신 구간, ‘5점’ 보통, ‘6~10점’을 신뢰 구간으로 분류할 경우 ‘신뢰’보다는 ‘불신’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우리나라 대통령 신뢰도 (17~20대 대통령 기준, 10점 만점 평균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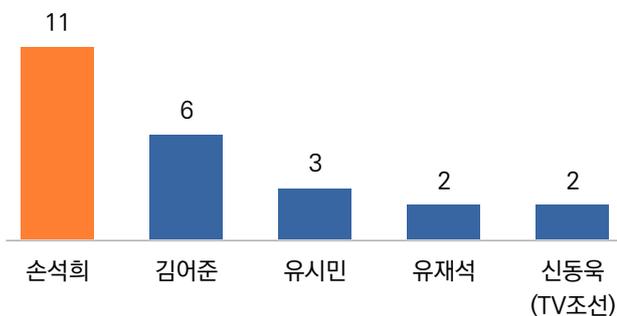
*자료 출처: 시사IN, [신뢰도 조사] 신뢰도가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기사' 참조, 2022.09.12. (2022년 시사IN 신뢰도 조사, 2022.08.31.(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유무선 RDD 병행 전화면접조사, 2022.08.19.~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41>))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에 실시.

◎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손석희’ 16년째 1위 고수

- ▶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을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 손석희가 11%로 1위에 랭크돼 16년째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자리를 지켰다.
- ▶ 다음으로 김어준 6%, 유시민 3%, 유재석 2%, 신동욱(TV조선) 2% 등의 순이었다.

[그림]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자유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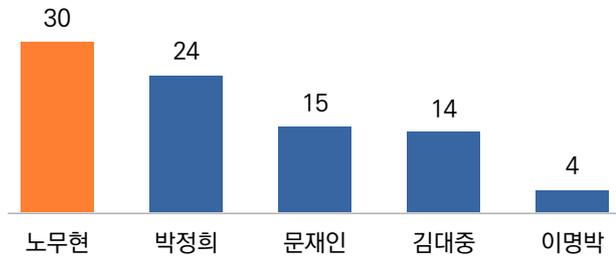


*자료 출처: 시사IN, [신뢰도 조사] 16년째 신뢰하는 언론인 1위 손석희' 참조, 2022.09.16. (2022년 시사IN 신뢰도 조사, 2022.08.31.(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유무선 RDD 병행 전화면접조사, 2022.08.19.~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08>))

◎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 3위!

- ▶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을 질문한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로 9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보기에 포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로 24%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그림]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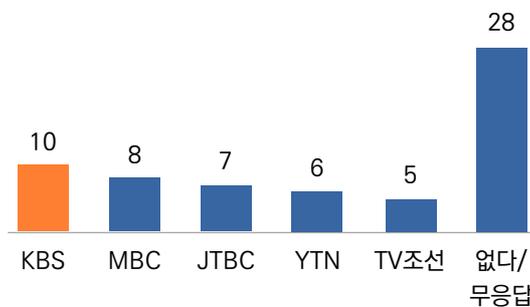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IN, [신뢰도 조사] 퇴임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 신뢰도는? 참조, 2022.09.15. (2022년 시사IN 신뢰도 조사, 2022.08.31.(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유무선 RDD 병행 전화면접조사, 2022.08.19.~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14>))

◎ 한국인의 언론 불신도, 계속 증가세!

- ▶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는 KBS가 10%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MBC 8%, JTBC 7%, YTN 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반면 신뢰하는 매체가 없다는 응답은 28%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 불신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



[그림]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없다/무응답' 비율 연도별 추이 (%)



*자료 출처 : 시사IN, [신뢰도 조사] 신뢰하는 언론매체 '없거나 모르겠다' 참조, 2022.09.16. (2022년 시사IN 신뢰도 조사, 2022.08.31.(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유무선 RDD 병행 전화면접조사, 2022.08.19.~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07>))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2호\(2022년 9월 4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경제, 부동산 집값 전망 주식 투자 여부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80호\(2022년 9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국민 10명 중 9명 "북한, 핵포기 안해"...조사 이래 가장 부정적](#)

연합뉴스_2022.09.22.

◎ 사회 일반

[17초 영상에 발칵..."돈 받는만큼 일한다" 조용한 사직 열풍](#)

중앙일보_2022.09.21.

[직장인 '과이어트 쿨팅' 확산... "최소한 업무만 한다, 칼퇴 후 건드리지마"](#)

조선일보_2022.09.22.

[\[Data & Now\] 작년 한해 당신이 마신 술, 소주 53병 맥주 83병](#)

중앙일보_2022.09.21.

[국민연금 엇갈린 여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덜 내고 덜 받자'](#)

노컷뉴스_2022.09.25.

[\[2022 커뮤니티 보고서\] 20대男 '에phem코리아', 진보 20대女 '더쿠'](#)

주간조선_2022.09.21.

[연소득 1억원 넘는 사람 119만명...전체 소득자의 4.9%](#)

연합뉴스_2022.09.27.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하지 않은 이유..."동경과 비난 동시대상인 탓"](#)

조선비즈_2022.09.27.

◎ 청소년 / MZ세대

["학교폭력 피해자 32% '사이버 폭력' 경험"](#)

연합뉴스_2022.09.22.

["아이들 외출 공포에 성조숙증"...코로나 3년 무서운 후유증](#)

중앙일보_2022.09.20.

['골프팅' 즐기는 MZ세대..."새로운 양극화 조장 우려"](#)

아시아경제_2022.09.21.

["그냥 쉬거나 쪼개기 알바"...코로나 풀려도 구직난 허덕이는 청년들](#)

매일경제_2022.09.25.

["MZ는 이렇다 저렇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왜냐하면](#)

매일경제_2022.09.21.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중이값 올해 30% 급등… 인쇄업계 “제작할수록 적자” 휴폐업 속출](#)

동아일보_2022.09.21.

["상반기 상용근로자 평균월급 384만원…작년 대비 6.1% ↑"](#)

연합뉴스_2022.09.25.

◎ 건강

[남성 암 1위는 폐암…“올해 남성 폐암 2만 2천 명”](#)

KBS_2022.09.25.

[죽음보다 두려운 치매…‘몸보다 빨리 늙는’ 뇌, 노화 늦추려면](#)

동아일보_2022.09.25.

['이 색깔' 과일 섭취… 노쇠 위험 낮춘다](#)

헬스조선_2022.09.23.

◎ 기독교 / 종교

[“코로나 이후 등장한 ‘교회 떠도는 성도’ 30% 육박”](#)

더미션_2022.09.20.

[팬데믹에 흔들린 교회… 장로교단 성도 3년새 55만명 줄었다](#)

더미션_2022.09.22.

[\[미션 특\] 개신교 납세율 94% 육박하는데 “교회만 특혜”?](#)

더미션_2022.09.22.

[미국인 66% “예배, 교회 밖에서도 괜찮아”](#)

크리스천투데이_2022.09.23.

[예장 합신, 교회는 7개 증가 교인은 약 4천 명 감소](#)

크리스천투데이_2022.09.22.

◎ 기획기사 :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한국경제)

1. [점점 빨라지는 '인구절벽 시계'](#) _2022.08.15.
2. [포그라드는 키즈산업](#) _2022.08.16.
3. [인구절벽의 파급효과](#) _2022.08.19.
4. [돌아오는 내국인 급감](#) _2022.08.22.
5. [세계서 유례없는 저출산국가](#) _2022.08.24.
6. [이민 절벽국가 한국](#) _2022.08.28.
7. [이민에 적극적인 선진국들](#) _2022.08.29.
8. [동남아 고령화 가속](#) _2022.08.31.
9. ['좁은 문' 기술이민](#) _2022.09.02.
10. ['인구전략 제도화' 토론회](#) _2022.09.05.
11.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터뷰](#) _2022.09.06.
12. [택시기사 고령화 심각](#) _2022.09.07.
13. [산업지형도 바뀐다](#) _2022.09.08.
14. [인구 감소하지만 가구는 증가](#) _2022.09.14.
15. [음식서비스업 인력난 심화](#) _2022.09.15.
16. [가정친화 복지 속속 도입](#) _2022.09.18.
17. [1인가구 시대의 건설업계](#) _2022.09.19.
18. [인구변화 직격탄 맞은 금융업계](#) _2022.09.20.
19. [폐업 잇따르는 웨딩업계](#) _2022.09.23.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대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오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명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윤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한일연합선교회, 에덴교회(담임목사 김현숙), 지도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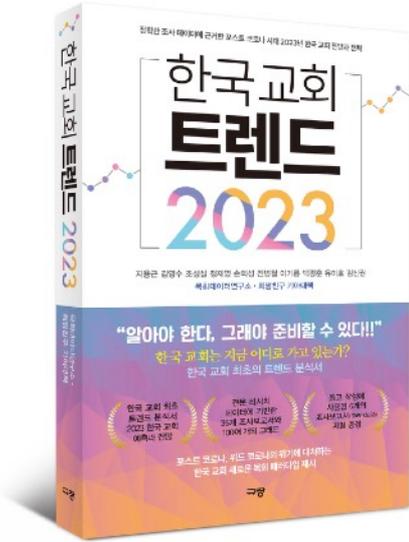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6개월 간의 긴 작업을 거쳐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9월 15일에 첫선을 보입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 월드비전 감사챌린지 |

감사노트 신청

감사노트 10만부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챌린지기간 : 11월 13일 ~ 19일(20일 추수감사절)

제 공 사 항 : 포스터, 브로셔, 감사노트